



골롬반선교

2025년 봄호 | VOL.130

“

이 희년에, 우리 삶 한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로 거듭나도록
기도합니다. ”

- 교황 프란치스코, 2024년 12월 기도 지향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선교

2025년 봄호 | VOL.130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3 마음을 여는 글 | 권세오
희망의 때

04 희망의 순례자들 | 오기백
변화하고 희망하는 선교회

08 아일랜드 이야기 | 앤지 에스카사
말은 필요 없다

10 참미 받으소서 | 다니엘 하딩
그 산 마을에 희망을

12 필리핀 이야기 | 지광규
부르심은 계속된다

14 칠레 이야기 | 최동민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16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류선종 신부 편
선교,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20 함께 걷고, 함께 쉬고 | 편집실

22 함께하는 여정 | 김경란
귀국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24 기억할 선교사 | 이종순
길 토마스 신부님, 어디에 계시나요

26 후원회 28 골롬반 소식



표지: 성 골롬반이 낯선 나라들로 선교를 떠날 때 넘었던 알프스 고갯길을 골롬반회 사제들이 뒤따라 걷고 있다. 선교는 흔히 길에 비유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였던 골롬반 성인을 모범 삼아,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과 연대하며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순례 여정을 되새기게 하는 장면이다. | 사진: 데리 힐리 신부 | 제호 캘리그래피: 장은열(전 평신도선교사)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발행일 2025년 4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권세오 신부 | 편집위원 권은정, 이지영 선교사 | 취재편집 김명기, 김소영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서울프로아트



| 마음을 여는 글 |

희망의 때

권세오 곤잘로 신부·한국지부장



희망의 순례자들을 위한 희년에 맞는 이 특별한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매우 행복한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체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희망의 때입니다. 죄의 용서, 화해의 시간이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부활이 주는 신선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먼 땅으로 떠나가서 미지의 세계에 맞서야 하는 많은 이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끼었을 때, 헤로데 임금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던 성가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 난민에게 손길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불의 앞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되돌려주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한편, 지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남미에 사는 어느 원주민들은 “어머니 지구”라고 부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생물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골롬반 가족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과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부활은 피조물 모두에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희망의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여하신 이 신선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빌며, 진심을 담아 부활을 축하합니다. ✠



변화하고 희망하는 선교회

인터뷰·오기백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부총장 피터 오닐(Peter O'Neill) 신부가 지난 11월, 총본부 대표로 방한해 사제서품식과 지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오기백 신부가 인터뷰를 청해 새롭게 결의한 본회 우선순위 선교 사명에 관해 묻고, 희망의 순례자로서 우리 골롬반회가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독자들에게도 낯익은 얼굴의 피터 오닐 신부는 총장(2012년~2018년)을 지냈던 케빈 오닐 신부의 쌍둥이 형제이기도 합니다.

부총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출신이고, 1982년에 입회하여 1986년부터 2년 간 일본에서 첫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991년에 사제품을 받고 대만으로 파견되어서 26년 동안 사목했습니다. 주로 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를 동반했는데, 호주로 발령을 받고 가셔도 계속 그 활동을 했습니다. 오세아

오기백 신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피터 오닐 부총장 신부

“희망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우리 시대와 세상의 황폐한 땅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관습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머물지 마십시오.

희망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고, 절대 지지 않고 꿈꾸는 이가 되며,

평화와 정의가 다스리는 새 세상이라는 하느님의 꿈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24년 주님 성탄 대축일 강론에서—

”

니아지부의 JPIC(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코디네이터로도 일했습니다.

골롬반회는 작년 세계 총회에서 “변화”를 선택하였는데요,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선교회, 수도회, 온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자가 감소했고, 선교사로서 평생을 충실히 살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변화”는 우리가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골롬반회는 1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사 수는 부족하여, 사목 활동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진취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국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카리스마 중 하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회년을 선포하시면서 “희망은 희망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희망을 지니며, 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려면 담대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담대한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선교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년 동안, 우리가 실천할 우선순위 선교 사명으로 이 두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우리회는 골롬반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선교 활동에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두도록 오래전부터 요청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2023년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과 정치, 빈곤, 기후 등 여러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선교회로서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지원하는 사명을 수행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낯선 이를 환대하라”는 가르침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이주민 문제가 처음 우리 총회에서 제기되어 2000년부터 줄곧 우리 회의 우선순위였고, 후원자들과, 본당 공동체가 이주민을 환영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소중한 재능을 함께 나누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갑자기 떠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교황께서 언급하신 현대판 노예제도는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골롬반 선교자들 자신도 이주민입니다.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롬반회 영국지부의 선교사, 후원회원, 직원들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회의 또 하나 우선순위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복원”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성을 꾸준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은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물의 수분을 돕는 벌은 그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농작물 생산이 어려워지고, 기아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합니다. 하지만 벌이 없으면 포도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지 않으면 밀을 얻을 수 없고, 제병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하는 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 지구를

돌보는 일은 아주 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멸종이 가속화되면, 전 세계에 기아와 더 많은 빈곤이 발생할 것입니다. 1970년 이후 동물 종 절반이 멸종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물종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숲과 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육지는 15%만, 바다는 7%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고, 바다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선교회의 카리스마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인간이 생물다양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지구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성 골롬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창조주를 알고 싶다면 먼저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깨닫는 길입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 항상 앞장서 실천해 왔고, 2015년에 교황이 반포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따라 창조세계를 돌보도록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변화하고 희망하는 선교회에서 후원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선교 동반자”인 골롬반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

라 우리 선교회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다른 역할로서 같은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한 부분이므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기도와 후원과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매우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선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중독에서 회복 중인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저소득 아동의 교육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후 변화와 홍수로 피해를 본 가정이 다시 살아가도록 부서진 집을 세우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빈민가 사람들을 위해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남미 칠레와 페루에서는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후원자들 도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와 봉사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선교 여정을 함께 걷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골롬반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후**



말은 필요 없다

앤지 에스카사 Angie Escarsa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필리핀 출신이며 1999년에 아일랜드로 파견되어 26년째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노인과 난민 사목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골롬반회는 “이주민·난민, 생물 다양성 보호 및 회복”을 우선순위 선교 사명으로 실천함으로써 “다른”이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느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선교 사명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일랜드에 들어온 난민들,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노인과 이종고를 겪는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말의 한계를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라 씨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포함해 그 어떤 장벽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필자(맨 오른쪽)는 아일랜드 더블린시의 발리문Ballymun 주민들과 함께 도시 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저는 매주 금요일에 요양원 두 곳을 방문합니다. 그중 하나인 더블린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타라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73세 여성인 타라 씨는 우크라이나 난민인데 전쟁 중에 가족 대부분이 사망하여 홀로 남겨 되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채 낯선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타라 씨를 만나러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방을 못 찾아서 몇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알려준 대로 복도 끝방에 도착하니 조금 열려 있는 문에 “출입제한”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사이로 누워 있는 타라 씨가 보였습니다. “뚝뚝” 저는 인사를 건네고 제가 찾는 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라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표정 없는 얼굴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타라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 걸음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알려주면서 돌봄 담당자(타라 씨를 제게 소개해 준 사람)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제야 타라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타라 씨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어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역 앱을 열고 우크라이나 말을 한 뒤 영어로 변환된 내용을 보라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 타라 씨는 사회복지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그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지사는 아니지만,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하였고, 금세 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나 뵈게 되어 반갑다고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타라 씨는 할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저와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그가 불안해했기에 첫 만남은 그쯤 마무리해야겠다 싶어 다음 금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여성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그날 방문이 쓸모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분명한 어려움이고 큰 도전인데, 앞으로 그를 위해 내가 할 것이 있을까 자문하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 어떤 말이나 행동만큼이나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난민들이 요양원 같은 곳에서 대화할 가족 없이 홀로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 심정이 헤아려졌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가 있는 타라 씨는 다리와 발 부종 때문에 혼자 걷기도 일어서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에게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



아일랜드 성 골롬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골롬반 은퇴 사제들을 돌보고 있는 필리핀 출신 아르페 씨와 그의 딸과 함께(가운데가 필자)

요할까 하며 그의 고통이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려는 “다른” 사람의 “존재”는 그 어떤 말이나 대화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타라 씨를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측은지심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의 사목을 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찾아가서 내가 그를 위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타라 씨를 만나고 왔는데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부은 손과 다리를 말없이 부드럽게 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제가 타라 씨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그에게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

그 산 마을에 희망을



다니엘 하딩 Daniel Harding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호주 출신이며 1994년 사제품을 받았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선교하고 있다

골롬반회는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칠레 발파라이소교구에서 사목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칠레 중부 항구 도시인 발파라이소와 비냐 델 마르가 이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외곽 대부분은 해안에서 솟아오른 높은 산에 둘러 있으며, 매우 가파른 이 산비탈에 대규모 무허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롬반회가 사목했던 산꼭대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과도한 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시 야자수림을 밀

어내고 주택지를 조성하려는 개발업자들로부터 끈질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잡풀을 제거하는 등 산불 위험을 줄이는 일도 진행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산 위 계곡에서는 삼시간에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칠레는 한여름), 최악의 산불이 발파라이소를 휩쓸었습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센터에 따르면, 2주 동안 지속된 화재에 137명이 사망했고, 주택 6,587채가 파괴되었으며, 백 년 된 식물원이 전소

칠레 중부에 위치한 대도시 발파라이소. 해안 산맥이 솟은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변화한 대도시와 가난한 이들의 지역이 공존하는 이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칠레 발파라이소에 있는 라 캄파나 국립공원이다. 이곳에 자생하는 야자수 등 다양한 토종 식물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 지역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되었습니다.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치명적인 산불이자, 2009년 호주에서 발생한 일명 “검은 토요일” 이후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대피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화재에 파손되어 경보를 받지 못한 이들, 재산을 지키려고 집안에 머물렀던 이들, 어디로 대피할지 정보를 몰랐던 이들 등 빠르게 번지는 불길 속에서 제때 피신하지 못한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칠레는 지진, 화산 활동,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는 잘 갖추고 있지만, 이제는 산불에 대한 대응 교육이 필요해졌다고 말합니다.

2월 산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0년 이후 중부 지방은 엄청난 가뭄을 겪으며 주변은 메말라갔고, 수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거기다 2023년에는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려 풀과 덩불이 자라났는데, 이것이 2월 산불에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고온건조, 엘니뇨 현상, 해안 산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 이용 변화가 산불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화나 방화로 인한 산불도 많이 발생합니다. 산불은 최근 들어 더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할뿐더러 그 기간도 늘어나고 강도가 커짐에 따라 피해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칠레에서 지난 10년 안에 여섯 번이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중부 지방에서만 26

명이 산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파라이소 산비탈에는 수백 년 된 원시 야자수림과 토종 식물군이 자생하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래종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칠레 기후복원력연구소는 다양한 생물종 감소와 외래종 단일 군락 확산이 산불을 빠르게 번지게 하며 그 범위와 강도,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도시의 인구는 최근 몇 년간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주거촌은 불에 잘 타는 목재와 값싼 소재로 지은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산림 군락지 부근이나 산꼭대기에 자리해 화재 시 큰불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산불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터, 차량, 농작물 등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으로는 화재 보험을 들 형편도 안 되거니와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할 여력도 없습니다. 작은 판잣집에는 노인, 싱글맘, 실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배제를 겪어 왔는데, 이번 산불은 생존자들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부와 가톨릭교회, 여러 기관이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한 산불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

부르심은 계속된다

지광규 대철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서울대교구 문래동성당 출신이며 2006년 입회하여 2016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이듬해, 신학생 시절 첫 선교 활동을 했던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본당과 교구 성지에서 사목하였다. 2024년부터는 마닐라에 위치한 본회 국제 신학원 부원장으로 부임해 신학생 양성을 맡고 있다.

새로운 부르심

수도 마닐라의 말라페 본당에서 사목할 때였습니다. 총장님으로부터 저를 신학원 부원장으로 발령 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내가 선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 양성을 맡는 것은 그들

삶과 선교회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하면서요. 시간을 가지고 성찰하고 기도해 보고 대답해 달라는 총장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 안에서는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본당과 교구 성지에서 사목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말라페 본당에 오기 전에 사목

왼쪽부터 신학생 라리, 골롬반, 매튜, 직원 틴틴, 필자, 신학원장 핀바 신부, 모세세, 앙리, 도미니카. 영성의 해 수련과 선교 실습 중이라 사진에 없는 신학생을 포함해 미얀마, 아일랜드, 키리바시, 피지, 필리핀, 한국 출신이 다양성과 역동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했던 잠발레즈(필리핀 북서쪽 위치)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에, 무엇보다 신학생 양성자의 삶은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라페 성당에서 함께 사목하시는 한 골롬반 신부님과 제 고민과 상황을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시던 신부님은 "본당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신부님에게 좋은 일이지만, 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미래 골롬반 선교사들을 위해 베드로 신부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삶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여기 본당에서 만나는 청년들이라 여기고 사목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용기를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총장님께 최종 임명을 받고, 저는 양성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와 서울에서 공부한 뒤, 2024년 여름,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본당과 교구 성지가 아니라 우리 골롬반회 신학생들이 사는 마닐라 국제 신학원으로 말이지요. 이곳은 필리핀 출신 신학생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골롬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며 선교사제가 되는 양성을 받는 집이자 공동체입니다. 먼저, 신학생들과 신학원장 맥스웰 핀바 신부님과 인사를 나눈 다음, 전임 부원장님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잠시,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신학원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께 투정 부리고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총장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 하느님께서 책임지시라고, 능력도 모자란 놈 앞혀서 지금 골롬반회 미래를 망가트릴 생각이시냐고 말이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입회하고 나서 제주에서 영성의 해를 보내고 1년 만에 서울 신학원으로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신학원 가족들과 점심을 먹는데, 당시 부원장이셨던故 마 미카엘 신부님은 저를 포함한 20대 중반 또래 학생들에



무덤가 마을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필자

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칠십입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그러니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기쁘게 새 학기 함께 잘 지내봅시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선교사제로 지내신 신부님께서 이제 막 신학생이 된 저희에게 배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닐라 신학원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저는 이 공동체의 다양함 속에서 매일을 학생들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를 향한 열정을 느끼고, 삶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서 날마다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 골롬반 선교사제가 되기 위하여 기도와 공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정진하는 신학생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최동민 파스칼 신부

대전교구 소속으로 2019년 서품을 받았다. 본회 지원사제로서 2022년, 칠레에 파견되어 작년까지만 해도 산티아고의 외곽 지역인 푸엔테 알토 산 마티아스 본당에서 사목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피데이 도움으로 산티아고 대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환경도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기쁜 일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이곳 칠레에서의 생활은 여행이 아닌, 정착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에,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문화를 알지 못했기에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해코지하려는 듯 보이니까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몰라 생기는 일상 생활의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오랜 시간 스스로 해결

해야만 했습니다.

이국땅에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던 제가 설레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만난 칠레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저를 애정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교회 밖 사람들, 제가 사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상점 직원들, 동네 이웃들이 저를 친구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도와주려는 모습 덕분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

필자(맨 왼쪽)가 칠레 남부 쿠라코 데 벨레스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았다.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칠레 사람들과 만남은 선교 생활에 큰 힘이 된다.



칠레에서 활동하는 골롬반회 김종근 신부, 성요셉 신부와 그곳 수녀님들과 함께



칠레 남부 작은 마을의 성당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나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생활과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갈수록, 더 많은 이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자신들 안으로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칠레는 저를 친구로 받아주는 친근한 곳이 되었고, 칠레 사람들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모르는 이들에게 환대를 받고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환대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쟁 난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조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야 했던 이들, 국가 재난 사태에서 피난을 온 이들입니다. 조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어 외국 생활을 택해야 했던 이들의 어려움은 제가 겪는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생사 문제입니다. 그 중에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의 노력과는 달리, 사회의 시선과 멀리 때문에 아예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때로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고, 굶주림을 채워줄 음식도 없고, 다 말라버린 혀를 적서줄 물 한 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기 탓으로 벌어진 것

이 아닌데도 아무런 도움도, 환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외로움과 자괴감, 그리고 삶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주민, 난민 문제는 단순히 경제와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며, 사랑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이방인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환대해 주고, 아껴주고, 배려해 준다면 그보다 더 따뜻한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 이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낯선 이국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은 이제 남이 아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형제요, 자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 2,19). ✠

선교,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편 -

인터뷰·권은정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 등 인터뷰, 구술 책을 작업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선교사'는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었다. 주로 푸른 눈의 서양 신부님들이었다. 이제껏 선교사제들을 만나면 질문의 시작은 꼭 이랬

다. "한국에 오신 해가 언제였나요?"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1994년 한국 지부의 첫 방인 선교사 김종근 신부가 칠레로 파견되

대만 신주교구 토폰성당에서 주임으로 사목할 때, 인근 지역의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영어미사를 집전했다.



① 류선종 신부가 사제서품식에서 선배 김종근 신부의 안수를 받고 있다.
② 이주민 센터 "희망" 깃발을 들고 ③ 신학생 시절 첫 서약식 때 류선종 신부 (그 오른쪽은 이어돈 미카엘 신부)

었다. 그리고 30년이 되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이 일반화되었다. "선교지로 나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쩐지 가슴 뿌듯한 느낌이 든다.

부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신자들과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선교사는 작은 실수를 통하여 커 나간다고 그는 생각한다.

2017년에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에서 서품받은 젊은 선교사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가 대답한다. "대만에 파견된 지 8년째 됩니다. 그전에 실습한 기간이 2년 되니까 대만에서 지낸 지는 10년이 됩니다."

골롬반회가 대만에 진출한 것은 1979년이다. 첫 사목지는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신주교구다. 그러나 신자가 많지는 않다. 천주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1~2퍼센트 정도이니 큰 본당이라 해도 주일미사 신자 수가 백 명을 좀 넘는 수준이다.

대만은 5개 이상의 다중 언어 사회다.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신자들을 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죠. 근데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재밌어요. 좀 서툴러도 그분들의 언어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간단한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마음을 여시니까요."

류 신부는 1년간 언어 공부를 마치고, 앞선 선배 선교사제들의 뒤를 이어 2018년 신주교구 토폰 본당 주임신부로 발령받았다. 예외 없는 선교사의 운명, 언어 장벽 앞에 그도 부딪혔다. 그런데 그 낯선 언어와 만남이 설레고 기뻐한다. "언어가 서툴러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신

그동안 골롬반회는 대만 사회 내에서 두 가지 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한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사목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회에서 이 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롬반회는 많은 이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은 골롬반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선교 활동이 단순히 기존 사목을 유지하는 정도라면 그 선교지에서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당 봉사자들과 즐거운 점심시간. 사진 왼쪽 앞이 본문에서 언급한 故 임귀미 선교사



레지오 회합을 마치고 교우들이 준비한 간식을 나눌 때

불교와 도교 신자가 대부분인 대만에서 천주교 신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천주교 신자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들이다. 대부분 높은 산간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받는 사회적 대우는 매우 낮고 열악하다. 대만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 상황도 다른 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는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간다. 용감하게 돌진하는 듯하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교지 안에서 맞닥뜨린 상황은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시대의 요구를 잘 알아내고 거기에 응답할 줄 아는 게 중요하지요.”

가장 먼저 지역교회를 세우고 신자를 늘리고 그들의 구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했던 본당 중심 시대와 달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류선종 신부는 따르고 싶은 선배 선교사들이 많다. 왼쪽부터 제주 이시돌 목장을 개척한 임피제 신부, 필리핀 네그로스섬의 브라이언 고어 신부, 발달장애인의 벗 천노엘 신부

라졌다는 말이다. “자신이 속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게 없다면 선교사라고 불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릴 적부터 성소 모임에 나갔던 그는 대학 시절 골롬반회 신부님을 만나게 되면서 행로를 굳혔다. “골롬반 신부님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신자들과 격의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닮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즈음 참가한 골롬반회 필리핀 선교체험 프로그램에서 마주친 선교사들의 삶이 그를 온전히 흔들어 놓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곧장 골롬반 신학원으로 들어왔다.

류 신부는 작년에 타오유엔 평전 본당으로 옮겼고, 그곳 이주 노동자 센터 ‘호프Hope(희망)’의 책임도 맡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만 사회로 잘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한다. 그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그들로부터 배우는 점이 많다. “얼마 전 우리 센터의 외국인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대부분 공장주와 합의하고 끝내는데 이분은 법정까지 가셨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고를 당하는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기지는 못했어도 연대 정신을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그는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직’을 굳이 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만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사무장님(편집자: 故 임귀미 선교사)은 평생을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일한 분이셨어요. 그분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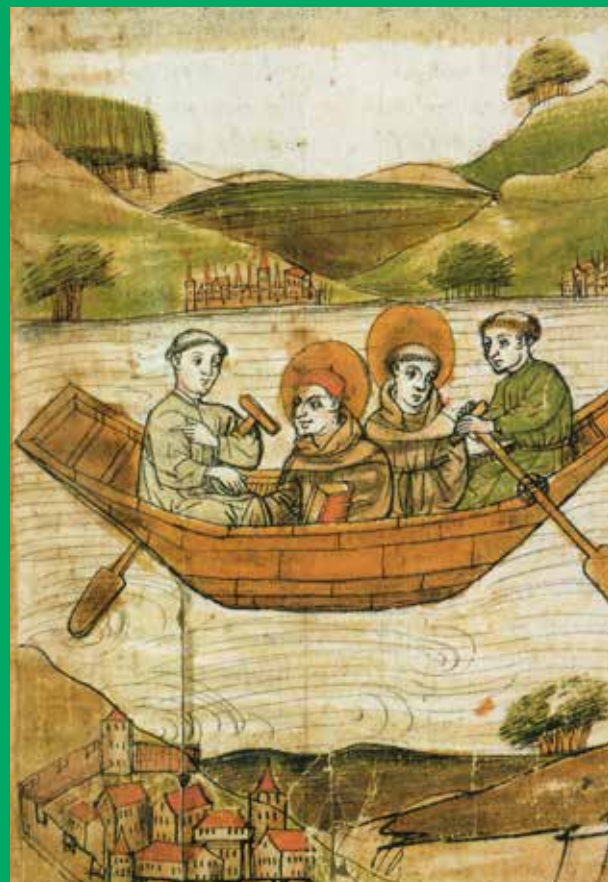
따르고 싶은 선배 선교사들은 양손으로 꼽아도 부족하다. 신학생 시절을 보낸 필리핀에서 만난 브라이언 고어 신부(편집자: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시절, 군과 정부, 기업의 탄압에 고통받던 농민들을 옹호하다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제주 임피제 신부, 광주의 천노엘 신부... 그는 특히 무자비한 광산 자원 개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운 선교사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언젠가 자신도 그런 길을 가고 싶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삶이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가 환한 표정으로 답한다. “선교지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않고 나를 맡기죠. 낯선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성장이고 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골롬반회는 희망의 순례자들로서 새로운 미래로 향해간다. 그 여정이 젊고 씩씩하고 활기찬 선교사들로 매워진다. 겸손으로 무장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류 신부의 걸음은 힘차다. ✠

| 함께 걷고, 함께 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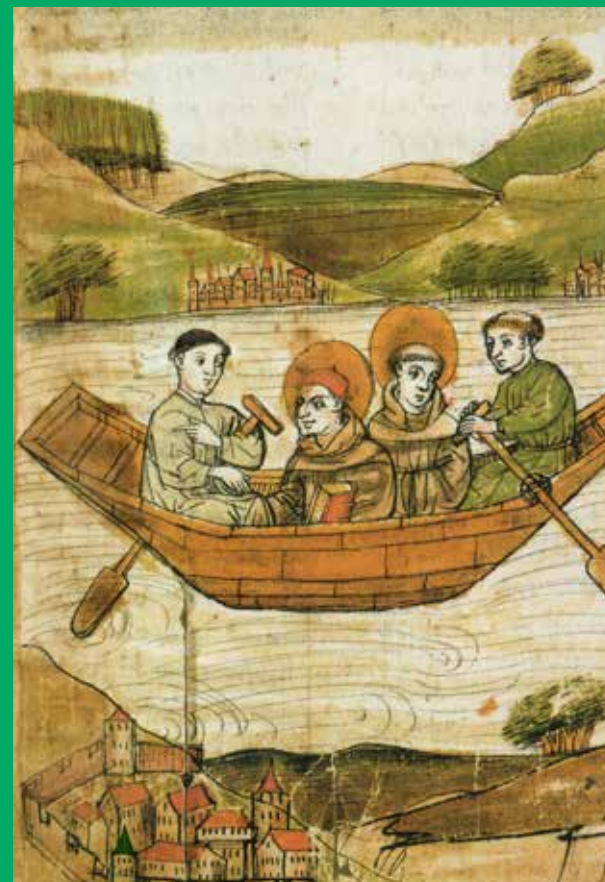
두뇌 운동도 하면서, 골롬반 성인과 함께 선교 여정을 걸어요!



〈콘스탄스 호수를 건너는 성 골롬반과 동료 수도승〉으로 전해지는 10세기 작품입니다. 라인강의 일부로 오늘날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한 콘스탄스 호수는 610년경 골롬반 성인이 새로운 선교지로 향하며 건넌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 골롬반은 ❶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될 것을 결심하고, 고향을 떠나 유럽 곳곳 낯선 나라를 다니며 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골롬반과 동료 수도승들은 홀대, 무시, 모함, 박해와 내쫓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저 배에 오르기 전에도 이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멈춤 없이



새로운 선교로 이어집니다. 선장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풍랑과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고 노를 젓습니다.

선교사이며 이방인이기도 했던 골롬반 성인의 삶은 기후, 전쟁, 가난, 종교, 정치 등등 이유로 고국에서 살지 못하는 ❷ **오스민**, **나**민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리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배척 대상이 아닌 함께 지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거센 물길을 거슬러 가는 골롬반 성인이, 우리에게 이 여정을 함께 노 저어 가지고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정답은 30쪽에 있습니다. **후**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0차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김경란 다니엘라 수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필리핀 선교



파견된 지 9년 만에 잠깐 들어왔다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소임이 주어져 아주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물밀듯 밀려드는 많은 일을 하며 살아 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너무도 익숙한데 너무나 생소한, 판 세상 같은 우리나라를 느꼈다. 현관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던 중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편집자: 이하 리엔트리Re-Entry) 신청 공문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차마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마음에 접어 두고 일 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지난 봄, 2024년 리엔트리 신청 안내문을 받았고, 바로 용기를 내어 관구장 수녀님께 내 마음을 전했다. 신청 후 10월까지 6개월을 설렘 속에서 지냈다.

리엔트리가 열린 제주 이시돌 피정의 집에 들어서자 설렘은, 긴장감과 또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동반하였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열한 명의 참가자와 동반자 네 명, 우리 열다섯은 곧 어색함을 벗고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웃고 아파하며 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엮어 간 시간이었다. 선교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던 순간부터 그곳에서 살았던 나날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환성이 터지는가 하면 잘려 나간 듯한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다. 지독한 외로움과 아픈 마음을 보듬어 가며, 신명 나게 지냈던 선교 생활에 박수를

보냈고,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기도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며 저 밑바닥에 밀어 넣었던 나와 마주할 때는 무척 속상하고 아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냈는지를 돌아보면서 대견하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며 시간 여행을 하였다.

돌아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고 다 쏟았던 만큼 지치기도 하였다. 돌아온 고향은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고 공동체도 그러하였다. 고향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자신을 느꼈다. 고향으로 다시 해외선교를 나온 것처럼 아주 어정쩡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고국에서 적응해 가느라 애쓰고 있었다.

파견되기 직전의 고국이 아닌, 지금 현실에 재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면서 동시에 선물이다.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겠지만 주어진 자들에게도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인가 보다. 매일 매일을 잘 맞이하고, 익숙함에서 느끼는 낯센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값진 보물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 부르심에 이끌려 해외 선교를 나섰고 지금은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고 하셨다.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선교지 사랑들과 그 나라를 온전히 떠나보내며 안녕을 고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멈춤과 쉼을 통하여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은 다시 시작함을 중용하고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해도 그분께 대한 불씨를 지켜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이 성소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내 열망은 그 한적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1차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선교지의 소중한 경험은
시간성을 초월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에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에서 -



대상 2년 이상 해외 선교 및 교포 사목을 했던 선교사
일정 2025년 10월 20일(월)~25일(토)
장소 경기도 연천 착한 의견의 성모 피정의 집
문의 및 신청 ☎ 02) 953-0613
mission-edu@daum.net
담당 오기백 신부, 김명기 팀장(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작년 10월,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귀국 프로그램이 열렸다.
호수를 걸으며 묵상하고 있는 참가자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길 토마스 신부님, 어디에 계시나요

이중순 안나

골롬반 사제가 사목한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본회 선교사들과 인연을 이어 왔으며, 성남 상대원성당에서故 길 토마스 신부를 만나 고인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함께 일했다. 후원회원이자 55년째 골롬반의 친구로서 선교 여정을 동반하고 있다.



저는 골롬반회 신부님들이 세우셨던 성남 상대원 본당에서故 기 바오로 신부님(골롬반회) 때부터 식복사로 일했어요. 성당은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출근할 때 버스에서 내려 걷고 걷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찼어요. 그래서 기 바오로 신부님은 천국과 가까운 성당이라고 하셨어요. 기 신부님 후임으로 오신 길 토마스 신부님을 1989년에 처음 뵈었습니다. 신부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셨어요. 가파른 동네를 오르내리며 가정 방문

을 다니셨고, 사목회, 직원회 등등 일로 항상 바쁘셨어요. 길 신부님은 느긋한 성품을 지니셨고 아주 조용하셨어요. 자애로운 아버지 같았고,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쿠키와 차를 늘 준비해야 했어요. 신부님은 제게 성물방 일도 맡기셨어요.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바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성남 상대원 본당 공동체 आयु회 때(1990년대 초)



길 토마스 신부가 제주에서 사목할 때다. 그의 오른쪽에 원로한 신부가 있다(1973-74년, 서귀포성당).



길 토마스 신부와 상대원 본당 신자들 앞줄 오른쪽이 필자

상대원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마음은 넉넉하고 정이 많아서 신자들은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냈어요. 신부님과도 편하게 지냈고, 성당은 신자들의 사랑방 같았습니다. 성물방으로 찾아와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들려주면 저는 신부님께 전달해 드렸고, 신부님은 그 이웃들을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한국을 떠나실 때 가방 두 개가 전부였어요. 신부님을 모두가 좋아했기에 디들 슬퍼했지요.

신부님께서 미국과 영국에서 일하셨고, 저도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신부님과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원성당 사무장에게서 길 신부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부님과 연락이 닿았고, 호주에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부님의 초대로 저는 15년 전쯤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멜버른에 있는 골롬반 본부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곳 직원들과 한인 신자들과도 사귀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길 신부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그마한 옷장에 몇 벌의 옷이 전부였고, 책상 서랍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드린 선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어요. 당시 신부님은 암을 진단받고

투병하시느라 고생한 뒤였습니다. 저는 신부님 서랍장에서 구멍 난 양말을 꺼내 꿰매고, 옷의 헤진 부분을 꿰매어 드렸어요. 신부님은 당신의 모자와 털목도리를 제게 주시려 해서 겨우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 후 15년 동안 매일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계속 연락을 드리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골롬반회 사제서품식에 갔을 때 호주에서 오신 신부님에게서 길 신부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리 시크"라고 하셨지요. 신부님의 권유로 저는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신부님, 그렇게 많이 아프십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는 길 신부님께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분이셔서 하늘 나라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계시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부모님과 형제들은 만나셨겠지요. 지금 어느 하늘에 계시나요? 선종하신 호주인지, 묻힌지 고향 아일랜드인지, 한국에는 다녀가셨는지요?"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기쁘게 맞아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신부님은 천국에 가셨고, 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의 여정에 있는 지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매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에 문의하기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 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신청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5년 4월 -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4일	2일	6일	4일	1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5일	30일	27일	-	29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8일	13일	10일	8일	-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9일	14일	11일	9일	-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1일	9일	13일	11일	8일	원곡 성당	031-491-2064
하안	25일	23일	27일	25일	22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2일	27일	24일	22일	26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3일	28일	25일	23일	27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4일	29일	26일	24일	28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5일	30일	27일	25일	29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	-	12일	-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6일	21일	18일	-	20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20일	-	-	-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15일	-	17일	-	19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울(돈암동) · 제주** 7월 미사가 없습니다.
- **인천 · 원주** 8월은 미사가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신한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원주교구 설정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기간인 1965년 3월 22일에 춘천교구에서 분리된 원주교구가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골롬반회는 1939년에 춘천교구를 설립하여 강원도 전역에서 사목을 펼쳤으며, 원주교구가 설정되고 후 지학순 주교가 초대 교구장이 되면서 9명 한국인 신부와 함께 11명이 원주교구에 배속되었습니다.

1983년 원주교구에서 철수할 때까지 본회는 삼척 성내동(진 야고보), 정선(황폐리), 도계(신오복), 평창(함 브렌단), 고한(심 굴리엘모) 등 교구 내 본당 12곳을 설립하였고, 기리암, 배민수, 장영민, 유 가를로 신부를 포함해 81명 회원이 21개 본당, 교구청, 가톨릭방송위원회(석골로 신부 설립) 등 특수사목지에서 일하였습니다. *괄호 안은 초대 주임신부

박정희 정권 시절, 교구장 지학순 주교 투옥 사건은 한국 교회가 인권 옹호에 참여해 온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교구 내 골롬반 회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본회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되는 데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주교구는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배론성지 최양업 신부 기념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주례로 기념미

3월 22일 봉헌된 원주교구 설정 60주년 기념미사 | 제공: 원주교구

사를 봉헌했습니다. 골롬반회는 초청을 받고, 원주교구에서 사목했던 노아급 신부, 안광훈 신부를 포함해 사제단이 축하와 감사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원주교구와 함께했던 골롬반회에게도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원주교구의 희망에 찬 발걸음을 응원하며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1975년 2월, 지학순 주교(앞줄 가운데)가 석방되었을 때, 원주교구에서 활동하던 본회 회원들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표시로 지 주교 투옥 기간에 수염과 머리를 깎지 않았다.



골롬반 소식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특별전에 본회 선교사 소개



제공: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인들의 활약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알리는 목적으로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 3부(왼쪽 사진)에는 제주도민에게 반전, 항일 정신을 불어넣었던 골롬반

회 나 토마스 신부, 서 아오스딩 신부, 손 파트리치오 신부를 소개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천황 모독죄 등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던 세 사제는 훗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 일제에 의해 연금당했던 골롬반회원들 모습, 옥중 수기 등 역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독립기념관 거례의 집에서 개막행사를 열었고, 천주교인 독립운동을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본회도 초청을 받아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기간 2025년 3월 21일(금)~4월 16일(수)

장소 독립기념관 거례의 집(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출처: 국가보훈부

30치를 맞은 해외선교사 교육 성료

본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톨릭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회장 남승원 신부)는 1월 13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서른 번째 해외선교사 교육을 시작해, 2월 6일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예비 선교사 15명을 축복하였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강론에서 선교 사명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헌신이며, 배

가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야 하듯이 두렵지만, 하느님의 “배”로서 막연한 믿음의 항구를 떠나야 선교지에서 하느님의 손길이자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제·수도자들은 5개 수도회와 3개 교구에 소속된 15명으로 일본, 세네갈, 아일랜드, 볼리비아 등 7개 나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골롬반 소식

오병웅 신부, 자원사제 프로그램에 참여

서울대교구 오병웅 베드로 신부가 본회 자원사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서울 골롬반 집에 들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남미 파견을 앞두고 선교지 언어와 영어, 상담 공부 등 선교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칠레로 파견되었던 대전교구 최동민 파스칼 신부가 3년 계약 임기를 마치고, 그간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피데이 도눔 사제로서 칠레 산티아고 대교구에서 사목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민 신부의 선교 체험을 14~15쪽에 실었습니다.



오병웅 신부



최동민 신부

길 토마스 Thomas Gerald Cleary 신부 선종



20년 동안 제주교구와 서울대교구, 수원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던 길 토마스 신부가 2025년 1월 9일(현지 시각) 선교지 호주에서 선종 하였습니다. 향년 80세.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난의 삶을 실천했던 길 토마스 신부를 기억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1944년 5월 18일: 아일랜드 메요 출생
- 1962년 9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 1969년 4월 6일: 사제 수품
- 1969년 9월 19일: 한국 도착
- 1970년~1974년: 제주교구 동문·서귀포, 1975년~1979년, 1984년~1988년: 서울대교구 상계동·화양동, 1989년~1992년: 수원교구 상대원, 1992년부터 호주에서 활동
- 2025년 1월 9일: 호주에서 선종, 아일랜드 고향 가족 묘원 안장

아미니아시 라부wai Aminiasi Ravuwai 신부 선종



피지 출신 골롬반회 선교사 아미니아시 라부wai 신부가 1월 9일(현지 시각) 선교지 페루에서 선종하였습니다. 향년 41세. 2020년에 사제품을 받고 페루 리마에서 사목하던 중 병을 발견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온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였기에 선교사제의 삶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쉬고

정답

- ①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 ② 이주민, 난민

골롬반 소식

선교사들의 희년 행사 참가

2월 28일, <선교사의 희년> 행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과 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초대해 미사와 간담회 자리를 가지고, 선교 체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6개 선교회와 수도회 소속 외국인 선교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에서는 오기백 신부와 동리

춘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 관심에서 멀거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다”면서 박해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정락 베라노 부제의 사제서품식에 초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서약하는 복된 사제서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룩한 서품식을 잘 준비하도록 수품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사편 116,13)

사제서품식

일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2시
장소 대구대교구 신서성당
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첫 미사

일시 2025년 6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구대교구 신서성당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16길 2(신서동)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 926-1217

“ 우리는 골롬반 선교사 ”

뉴질랜드·미얀마·아일랜드·피지·필리핀·한국 출신 사제, 평신도선교사, 신학생으로 구성된 파키스탄 유닛(지부보다 작은 단위) 소속 골롬반회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파키스탄 미르푸르 카스, 바딘, 카라치, 하이 데라바드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종교 간 대화, 분당·소수 부족·이주민 사목, 가톨릭 아동·교리교사 교육 등을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사도 요한 신학생(사진 둘째 줄 맨 왼쪽)이 보내온 사진이다.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 골롬반을 본받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이 삶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응답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인 젊은이

문의 vocation@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